

일본 도시하층지역 마을 만들기의 성립과 그 의의: 참여민주적 시민공간의 형성*

박지환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

이 논문은 오사카시 가마카사키(釜ヶ崎)에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마을 만들기에 주목함으로써, 현대 일본사회에서 마을 만들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마카사키는 일용직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이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머무는 간이숙박소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홈리스로 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자, 홈리스의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단지 홈리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홈리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공생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사례는 마을 만들기가 개인의 정치적 참여와 조직 단위의 실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민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도시 거버넌스의 도구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현재 일본사회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참여민주주의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주제어: 마을 만들기, 주민운동, 홈리스, 시민공간, 가마카사키(釜ヶ崎)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06).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주최한 <5·18의 재구성고 미래적 상상>(2013년 11월 1일)에서 발표했던 글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이 때 토론을 해주신 임경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또한 제출용 원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I. 마을 만들기 ‘사업’ 혹은 ‘운동’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책이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도시연대 마을만들기센터,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현재는 서울시를 위시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조직과 개인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마을 만들기는 관심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주민참여라는 이름 하에 주민이 기업가적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과정에서 주민은 창의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주도적인 대상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가이드라인과 교과과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국가가 시민사회에 축적된 지식을 전유해 “더욱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엮어지는 통치기술을 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박주형, 2013: 27, 37).

한국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푸코의 신자유주의적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부적절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가 시민사회의 역량을 교묘하게 전유(專有)하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유순한 주체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푸코(Foucault, 2003: 34, 40)는 “주체들이 자유로운 한 해서만 권력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주체에게는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각 개인이 “가능한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 권력

의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윤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마을 만들기도 권력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지배 관계의 장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전제 하에, 일본 마을 만들기의 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을 만들기가 시민사회의 역량이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유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민주적인 시민공간을 형성하고 새로운 주체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운동’일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 마을 만들기의 역사가 한국의 그것에 비해 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을 만들기가 한국에 소개될 때 일본의 사례가 주된 참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마을 만들기를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활동으로 국한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 만들기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김영주·박남희, 2012).¹ 이로 인해, 일본의 마을 만들기가 갖고 있는 주민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 마을 만들기의 경험을 한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가 ‘사업’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행정 기관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진행되는 지역사회 개선활동으로 이해된다. 일본건축학회(日本建築学会, 2004: 3)가 마을 만들기 교과서 제1권으로 출판한 『마을 만들기의 방법』에서 마을 만들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초로, 다양한 주체가 제휴·협력해서, 근린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며, 생활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즉, 지역사회로부터의 상향식 참여(“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초로”)와 여러 주체들 간의 협동(“다양한 주체가 제휴·협력해서”)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1. 다만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소개하는 번역서에서 주민참여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는 있으며(나가사와 세이지, 2009; 니시무라 이치로, 2013), 일본 마을 만들기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김중섭, 2013).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가 “지역자치조직도 시야에 넣는 공치(共治)의 사회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천과 시행착오를 통해 산출된” 결과다(日本建築学会, 2004: 7). 사실 일본의 마을 만들기는 고도경제성장기에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와 행정기관에 의한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에 대항하는 상향식의 주민운동으로 시작됐다(김찬호, 2000). 예를 들어, 주민 참여적 마을 만들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베시 마노지구(真野地区)의 마을 만들기는 지구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폐수 등 환경문제의 해결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공해반대운동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김진범, 2008). 1980년대 초, 고베시와 도쿄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등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가 일찌감치 제정되었던 것도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마을 만들기 운동의 경험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호협력적인 마을 만들기 방식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Watanabe, 2007).

또한, 1990년대 이후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된 데에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비리와 한신 대지진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공익의 가장 합법적 담지자라는 믿음이 붕괴된 반면, 시민사회가 도시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증대된 것과 같은 일본사회의 정치적 변화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Sorensen, 2007).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 일본의 마을 만들기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 마을 만들기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오사카시 가마가사키(釜ヶ崎)에서 진행되어 온 마을 만들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탄생한 마을 만들기의 한 양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후술할 것처럼, 이 사례는 지역사회가 여러 주체들로 분열되어 집합적인 활동이 곤란했던 도시하층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새롭게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사회에서 마을 만들기가 참여민주주의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주민

운동임을 예증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가마가사키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마을 만들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가마가사키 마을 재생포럼’ (釜ヶ崎のまち再生フォーラム)과 ‘가칭 하기노차야 마을 만들기 확대회의’(仮称 萩之茶屋まちづくり 拡大会議)의 활동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²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2012년 2월, 2013년 2월, 2014년 1월 각각 1주일 간 가마가사키를 방문해 ‘가마가사키 마을 재생포럼’과 ‘가칭 하기노차야 마을 만들기 확대회의’의 주요 관계자들과 인터뷰했다. 또한 ‘가마가사키 마을 재생포럼’이 주최하는 ‘마을 만들기 광장’이라는 집담회를 한 차례 참여 관찰했다. 한편, 현지조사 기간 중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은 ‘가마가사키 마을 재생포럼’의 홈페이지, 니시나리구 홈페이지, 신문기사,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이 잡지에 발표한 글, 그리고 가마가사키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충했다.

II. 가마가사키의 사회구조적 변동: 마을 만들기의 필요조건

오사카시 니시나리구(西成区)의 북부에 위치한 가마가사키-행정용어로는 아이린지구(愛隣地区/あいりん地区)라고 불린다-는 일본 최대의 요세바(寄世場)다.³ 요세바란 좁은 의미에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용직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2. 전홍규(2004), 코다마 토오루(2004), 박지환(2013)도 가마가사키의 시민단체들이 전개한 활동을 홈리스에 대한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다루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마을 만들기의 정치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3. 오사카의 가마가사키와 함께, 도쿄의 산야(山谷), 요코하마의 고토부키초(寿町)는 일본의 3대 요세바라고 불리지만, 현재까지도 일용직 노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곳은 가마가사키 뿐이다(生田武志, 2007: 21). 그 이유는 도쿄나 고토부키초에서 일용직 노동자 집단의 고령화가 더 일찍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 지역의 차이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톱 길(Gill, 2001)이 고토부키초를 연구하고 쓴 *Men of Uncertainty*의 3~4장을 참고하면 된다.

〈표 1〉 가마가사키의 인구구조

	아이린지구	니시나리구	오사카시
생활보호	약 9,900명(36%)	28,483명(21%)	147,210명(5.5%)
남성비율	83.2%	58.8%	48.7%
세대구성	1.16명	1.63명	2.02명
고령화율	40%	29.9%	22.7%

자료: 大阪市. 2012. 「あいりん地域の現状について」. 第1回西成特區構想プロジェクトチーム會議 資料; 釜ヶ崎のまち再生フォーラム 내부자료. 2012. 「あいりん地域データ」.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내는 간이숙박소가 밀집된 도시공간을 뜻한다. 호경기였던 1990년대 초까지도 가마가사키는 일용직 건설업 종사자가 일거리를 구하고 생활하는 말 그대로 노동자의 거리였다.

그러나 현재 인력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2009년 현재, 그날 그날 고용여부가 결정되는 현금구인수(現金求人数)의 연간 합계(326,621명)는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던 1989년(1,847,507명)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다(福原宏幸, 2012: 79). 따라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한국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生活保護)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면적이 7.35km²인 니시나리구의 생활보호 수급자 28,483명 중, 면적이 0.62km²에 불과한 아이린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9,900명에 이른다(大阪市, 2012). 니시나리구 생활보호수급자의 약 35%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가마가사키는 인구학적으로도 매우 특징적인 도시공간이다. 2010년 현재, 아이린지구 인구 중 83.2%가 남성이다(大阪市, 2012). 니시나리구와 오사카시의 남성비율이 각각 58.8%와 48.7%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성비 불균형은 두드러진다. 또한, 가마가사키에 거주하는 세대의 평균인원은 1.16명에 불과하다. 니시나리구와 오사카시의 해당 수치는 각각 1.63명과 2.02명이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가마가사키의 경우 40%에 달해, 니시나리구와 오사카 시 전체의 고령화율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가마가사키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는 거의 없고, 고령의 단신

남성가구로 이루어진 지역인 셈이다.

그러나 가마가사키가 1945년 이후 줄곧 현재와 같이 단신 남성 고령자로 만 이루어진 지역이었던 것은 아니다. 가마가사키는 2차 대전 중 미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이 자리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잣집, 목조 간이숙박소 등 저렴한 주거시설이 다시 들어서며 전후(戰後)에도 도시 하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平河隆啓, 2011). 따라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마가사키는 항만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일용직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 하층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노천 인력시장이 서는 곳이자, 이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빈민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정기관과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폭동’을 빈번히 일으킨 것을 계기로, 1966년 오사카시, 오사카부, 오사카부경(大阪府警)은 가마가사키를 아이린지부로 지정하고 세 행정기관이 각각 복지, 노동, 치안을 분담하여 이 지역을 관리하는 “아이린 체제”를 수립했다(生田武志, 2007: 24). 이 체제 하에서, 오사카시는 ‘폭동’이 빈발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가족이 있는 세대를 사회복지시설에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르게 했다가 가마가사키 외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中根光敏, 1996). 한편, 오사카부와 중앙정부는 1970년에 열릴 오사카만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각종 토목공사를 담당할 남성 노동자를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했다. 이런 구인수요에 응답해 지방에서 홀로 상경한 남성들은 가마가사키의 열악하지만 저렴한 간이숙박소에서 주거를 해결하며 대규모 토목공사에 참여했다(平河隆啓, 2011). 따라서 가마가사키가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를 갖게 된 것은 단신 남성 일용직 노동자를 특정지역에 두고 관리하려 한 통치행위의 산물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가마가사키에 적용된 인구·도시 거버넌스 정책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유동인구가 지역사회의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건설업 일용직 노동의 특성상, 가마가사키의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현장을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며 일한다. 일용직 노동자를 고객으로 삼는 간이숙박업자나 상점주, 그리고 일반

주택 소유자와 같이 지역사회의 정주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2011년 현재 오사카시 자치회 가입률의 평균이 71%인 것에 비해, 아이린지구의 일부인 하키노차야연합진흥자치회(萩之茶屋 連合振興町会)의 가입률은 6.4%에 불과하다(寺川政司, 2012). 일본의 지역 사회에서 자치회가 갖는 위상을 고려하면(Bestor, 1989), 가마가사키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린 체제가 남긴 두 번째 결과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분열이다. 특히, 노동자·노동조합 및 노동자지원단체와 간이숙박소업주·상점주·주택보유자(=좁은 의미의 ‘지역주민’) 사이에 대립관계가 생겨났다(原口剛, 2011a: 28-29).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노동을 통해 번 돈을 이 지역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소비하는 최대의 고객층이었지만,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쫓겨나는 외부인에 불과했다(丹羽弘一, 1993).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음식점이나 간이숙박소가 종종 방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70년대 이후, 가마가사키에 위치한 일용직 노동조합과 노동자 지원단체는 이처럼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행정기관과 인력과 전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거나 일거리가 없는 연말연시와 장마철에 주거를 상실한 노동자를 위해 무료급식활동을 실시했다(原口剛, 2011b).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빈곤과 ‘폭동’은 가마가사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했고, 그 결과 가마가사키의 ‘지역주민’은 외부로부터 차별적인 시선을 경험하게 됐다. ‘지역주민’은 주소지가 가마가사키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나 취직을 할 때 거절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한다(니시구치 무네히로 씨와 인터뷰, 2013/02/16).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은 자치회로도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소수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의 여느 지역사회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자치회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지원단체가 지역사회 내·외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노동자와 노동자 지원단체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존재였던 것이다.

주의할 점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직들도 결코 통일된 집단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노동자 관련 조직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단체와 언제든지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나뉘었다. 또한, 홈리스 지원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과 가톨릭교 계열의 지원 단체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다. 단적으로, 1990년대 초까지도 후지는 전자에 대해 폭력투쟁을 주장하는 신좌익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神田誠司, 2012: 184-185). 즉, 일용직 노동자에 우호적인 세력조차도 분열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유동화와 분열로 인해, 가마가사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90년대 초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가 홈리스로 지역사회에 정주하게 되면서, 가마가사키에서도 마을 만들기가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졌다(ありむら潜, 2011: 105).

1998년 오사카시립대학의 홈리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8,660여 명의 홈리스가 오사카시내의 공원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大阪市立大学・都市生活環境問題研究会, 1998). 그 중에서도 가마가사키 내의 공원과 도로변을 주된 거처로 삼고 있는 홈리스의 수는 1990년대 초반 1일 평균 300명 정도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000명 정도까지 급증했다(大倉祐二, 2011: 11). 말하자면, 그 날 그 날 번 돈으로 간이숙박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연중 내내 대규모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분열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과 행정기관 양측 모두 인구의 안전을 담보할 새로운 장치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박지환, 2013: 88-90). 먼저, 일용직 노동자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홈리스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도 일용직 노동시장에 늘 존재하는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홈리스에게 더 이상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간이숙박업주나 상점주도 고객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홈리스로 전락하자 폐업의 위기에 내몰

리게 됐다.⁴ 한편,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도 가마가사키 노동자들이 적어도 한 달에 13일 정도는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수립했던 기존의 복지, 노동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실업자와 홈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초, 기존에는 관계가 소원하거나 반목하던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노동운동가, 종교지도자, 간이숙박업자, 복지시설직원—은 네트워크를 구성해 홈리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운동을 전개하며,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적대적인 대상으로만 보았던 행정기관과도 협조적인 관계를 맺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박지환, 2013; 水内俊雄, 2007).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최초의 움직임은 1993년 노동조합과 가톨릭 계열 홈리스 지원단체가 연합해 ‘가마가사키 취로·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연의회(釜ヶ崎就労・生活保障制度実現を目指す連絡会)’가 결성된 것이다. 이 연의회는 홈리스에게 최소한의 취로기회와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홈리스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임시야간긴급피난소를 운영했다.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이 연의회는 1999년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가마가사키지원기구(特定非営利活動法人釜ヶ崎支援機構)’로 조직을 재편하고 행정기관과 보다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며 홈리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욱 체계화해 나갔다.

정리하면,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는 1990년대에 형성된 두 가지 새로운 조건-단신 남성 노동자들이 고령의 홈리스가 된 인구구조의 변화와 행정기관과 협조적인 관계 속에 진행되는 홈리스 지원운동의 성립-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반공해운동에서 비롯된 마을 만들기가 온갖 시행착오 끝에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나서는 여건을 만들었다면, 가마

4. 1992년 간이숙박소의 수는 214채, 수용능력은 19,438명, 가동률은 70%에 달했으나, 2002년에 해당 수치는 139채, 15,300명, 40%까지 감소했다(水内俊雄 외, 2011). 2012년 현재, 간이숙박소는 61채, 수용능력은 7,484명에 불과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줄어든 90여 채 중 59채는 생활보호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아파트로 전환했고, 나머지는 폐업했다.

가사키에서는 마을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운동조직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치(共治)의 사회시스템”이 마련되었던 셈이다(日本建築学会, 2004: 7). 다만, 이러한 변화는 가마가사키에서 마을 만들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필요조건일 뿐,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할 주체들이 만들어져야 했다.

III.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의 성립과 전개: 마을 만들기 주체의 형성

가마가사키에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한 것은 ‘가마가사키거주문제간담회’(약칭 가마가사키거주COM, 이하 거주کم)라는 연구회였다(ありむら潜, 2000: 93). 거주کم은 홈리스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연합의 인간 거주회의 HABITAT 2에서 제기된 내용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1997년 10월에 결성됐다. 거주کم의 사무국장이었던 아리무라 센은 “1998년 오사카시 내 홈리스의 수가 8,660명으로 처음 밝혀졌습니다. 정말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좌표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마을 만들기로 타개해 가자는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거주کم의 조직배경을 설명했다(西成区役所, 2012: 18).

니시나리노동복지센터의 직원이자 가마가사키 노동자를 캐릭터로 삼아 만화를 그리는 작가이기도 한 아리무라 센 외에, 니시나리노동복지센터 또 다른 직원, 주택문제 및 마을 만들기 전문가, 오사카시 공무원 등 10명이 이 연구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1999년 초, 간이숙박소조합의 젊은 경영자들이 홈리스 문제 해결에 간이숙박소를 이용하자는 제안에 관심을 갖고 이메일로 거주کم에 연락을 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들이 거주کم에 참여하면서, 대립 관계에 있던 운동단체 관계자와 간이숙박소 업주 사이에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졌다(水内俊雄, 2007: 22).

간이숙박소의 빈 방을 홈리스 주거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거주کم이 1998년에 긴급대책으로서 제안한 ‘주거의 사다리론’의 일부분이었다. ‘주거의 사다리론’이란 “홈리스 문제 해결의 원칙은 주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지만, 일단 현재는 긴급사태이므로 시설이나 재택형 등 여러 가지 주거자원을 활용해서 노숙생활로부터 탈출해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小椋旭 외, 2008: 32). 나아가, 거주کم은 이 제안을 통해 홈리스에게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일이 “단지 홈리스 문제로서가 아니라, 늙어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홈리스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의 생활과제, 지역복지의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을 만들기는 고령의 홈리스가 생활보호를 받아 주거를 확보하도록 돕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999년 5월, 거주کم과 간이숙박소조합은 ‘주거의 사다리론’을 구체화적으로 실현할 긴급대책으로 ‘간이숙박소 빈방 2000실 활용계획’(簡易宿泊所空き室2000室活用プラン)을 오사카시에 제시했다. 이것은 오사카시가 간이숙박소의 빈방 2000실을 임대해서, 홈리스가 자립하기 전까지 중간적 거주시설로서 홈리스에게 제공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오사카시는 간이숙박소업주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업자가 오사카시에 몰려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숙박시설에 유/무료 이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小椋旭 외, 2008: 33).

이후에도 거주کم은 홈리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다른 주체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1999년 10월 ‘마을 만들기 광장’(まちづくりひろば, 이하 광장)이라는 모임을 조직했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는, 광장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거주کم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가마가사키 마을 재생포럼’(이하 재생포럼)을 출범시켰다.

이후 재생포럼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광장을 개최해 가마가사키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⁵ 예를 들어, 간이 숙박소 조합이 하루에 10명 내외의 홈리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한편, 일부 간이숙박소를 저렴한 숙소를 원하는 국내외 여행객을 위한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재생포럼은 지역사회 내의 각 조직 간에 존재하는 장벽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광장에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재생포럼은 지역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단체나 개인을 연결시키는 지역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지향했다(ありむら潜, 2000: 93-94). 이처럼, 재생포럼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을 포섭하면서, 가마가사키 지역 전체의 재생을 통해 홈리스의 주거문제도 해결하고자 한 점은 재생포럼의 운영규칙(2004년 9월 14일 개정)에도 잘 드러난다.

가마가사키 지역(아이린지구)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재생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및 주거에 대한 지원과, 지역 전체의 거주환경을 향상, 지원하는 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한다. 특히, 실현 과정에서 이 지역에 살거나 일하고 경영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이나 단체들 간의 광범위한 협동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행정이나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주민의 생활과 마을의 재생에 충분한 지원체제를 만드는 데 공헌한다.⁶

2000년부터 재생포럼은 “고령자라도, 한 명이라도 계속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기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 중에는 거주외

5. 광장은 2014년 9월 현재까지 모두 194회 개최됐다. 이 수치는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개최된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2014년 1월, 연구자가 광장에 참석했을 때는 자살률이 낮은 마을들을 조사한 한 연구자를 초빙해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일용직 노동자, 인근 고등학교의 교사, 신문기자, 대학원생은 물론 니시나리구청장도 참석했다.

6. <http://www.kamagasaki-forum.com/ja/index.html>(검색일: 2014. 9. 21).

안정화를 위해 서포티브 하우스(supportive house)를 신설하고 늘려가는 것도 포함됐다(藤田忍, 2004). 2000년대 이후, 간이숙박소 투숙객이 감소하면서 간이숙박소를 생활보호수급자 대상의 일명 ‘복지아파트’로 용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포티브 하우스는 기존의 간이숙박소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복지아파트와 같지만,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생활보호 수급자를 받아들인 주거시설이라는 점에서 복지아파트와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수의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며 고령의 거주자에게 안부확인, 생활상담, 금전관리, 투약관리, 시민검진 실시, 통원·입원 시 동반, 노인장기요양보험(介護保險) 가입 설명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현재, 가마가사키에는 10곳 정도의 서포티브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한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구치 무네히로는 서포티브 하우스 ‘오하나’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 하나는 간이숙박소였던 선플라자를 2000년 11월에 바꿔 개장한 것입니다. 2000년 6월경에 아리무라 씨가 선플라자로 찾아와서 “객실이 텅 비어있죠. 그러니까 간이숙박소를 복지아파트⁷로 바꾸지 않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처음 보는 사이에 무슨 실례나 싶어서 화를 내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리무라 씨가 가마가사키를 위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재생포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생포럼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이숙박소를 복지아파트로 개조하기 위해 2000년 8월까지 투숙객을 전부 내보냈으니까요. 나중에 복지아파트로 문을 연 후에도 기존 투숙객이 들어온 경우도 많습디만. 오 하나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당시만 해도 홈리스가 [주소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사례금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오 하나를 열면서 그걸 받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로요. 홈리스에

7. 이 인용문에서 사용된 복지아파트는 서포티브 하우스를 의미한다. 서포티브 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에는 아직 숙박업소에서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한 간이숙박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아파트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간이숙박소와 구분할 수 있었다. 니시무라 씨가 현 시점에도 복지아파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게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또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금전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도 필요하겠다 싶었죠. 게다가 일용직 노동자들은 원래부터 관공서를 싫어해요. 생활보호를 신청하려면 관공서에 가야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신청할 때 통역과 같은 역할로 따라가기도 했죠. 이런 저런 상황이니 생활보호를 신청한다고 시청 직원에게 설명해주는 거죠(니시구치 무네히로와의 인터뷰, 2013/02/16).⁸

또한, 재생포럼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홈리스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회와의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02년, 재생포럼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던 니시구치는 자신이 경영하는 서포티브 하우스가 있는 지역의 자치회를 재건하고 자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니시구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 내의 어린이집과 가톨릭 계열의 보육지원조직의 운영자 및 아이들, 그리고 서포티브 하우스에 거주하는 고령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예를 들어, 서포티브 하우스의 거주자들이 어린이집의 행사준비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인 아이들의 보호자와도 관계를 갖게 됐다.

나아가, 재생포럼은 니시구치가 속한 자치회와 그 주변 자치회까지 포함해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 모임의 활동 결과로서, 재생포럼은 2003년 7월 홈리스 자립 지원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니시구치는 이런 활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홈리스가 이 동네에만 없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홈리스가] 이곳에서 사라지더라도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노숙을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연구회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주변 자치회의 회장들도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노동자 대표 자치회장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즉, 재생포럼은 광장에서 개인적으로

8. 이하에서 니시구치 씨와 관련된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은 날 진행된 인터뷰 내용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형성된 인간관계를 통해 기존의 조직 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의 여러 주체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리무라에 따르면, “광장에서의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여전히 행정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시민활동으로서 마음대로 하는 것일 뿐인 것 같은 면이 있었다(西成区役所, 2012: 20).” 바로 이 시점에서 재생포럼은 ‘하기노차야 초등학교 이마미야 중학교 주변 마을 만들기 연구회’(이하 하기노차야 연구회)와 공동으로 지역공동체의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의 관계도 맺어 나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기노차야 연구회는 오사카시 계획조정국의 마을 만들기 활동지원을 받아, 지역의 자치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005년 결성한 마을 만들기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西成区役所, 2012).

하기노차야 연구회는 2008년 3월에 발표한 ‘마치즈쿠리 구상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마을 만들기”, “유사시에 오히려 안심, 안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현실적인 과제는 하기노차야 초등학교 외벽을 따라 영업을 하는 노점을 정리하고, 주인 없는 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노점으로 인한 통행상의 불편과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노점이 각성제 판매처라는 점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환경개선의 일차적인 과제가 됐다. 또한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에 물리는 일이 빈발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인 없는 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기노차야 연구회는 연구회의 주축을 이룬 자치회 구성원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사카시에 주인 없는 개를 관리하라고 요구해도, 그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나 홈리스가 기르는 개도 있는데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오사카시는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렸다(니시구치 무네히로와의 인터뷰, 2013/02/16). 그러므로 하기노차야 연구회도 지금까지 반목하거나 소원한 관계에 있던 노동자 및 노동자 지원단체와 제휴하지 않고서는 마을 만들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하기노차야 연구회는 지역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마가사키에 있는 여러 단체에 요청해, 2008년 7월에 ‘가칭 하기노차야 마을 만들기 확대회의’(이하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를 결성했다(仮称 萩之茶屋まちづくり 拡大会議, 2010: 2).

현재, 하기노차야 확대회의에는 오사카시립 이마미야 중학교, 가마가사키 의료연합회의, NPO 가마가사키지원기구, 재생포럼, 아이들의 마을, 하기노차야 사회복지협의회, 하기노차야 연구회, 하기노차야 상점가 진흥조합, 와카쿠사 보육원, 오사카부 간이숙소생활위생동업조합, 가마가사키 그리스도교 협우회, 가마가사키자료센터, 가마가사키 고향의 집, 사회복지법인 오사카 자강관, 오사카시립 하기노차야 초등학교, 하기노차야 연합진흥 자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寺川政司, 2012). 즉, 공립학교, 자치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행정기관과 가까운 조직에서부터 지역의 상인조직, 그리고 노동자·홈리스·빈곤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NPO까지 하기노차야 확대회의에 동참한 것이다. 따라서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일부 노동조합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주요 조직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지역단체들끼리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형 조직이어서, 사실상 재생포럼의 주요 구성원들-재생포럼의 회장인 오리타 타카유키, 사무국장인 아리무라 센, 그리고 자치회장을 겸하고 있는 니시구치 무네히로-이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모여 지역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재생포럼이 광장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 관계자들이 모여 광장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2008년 11월 하기노차야 초등학교 옆에 늘어서 있던 노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9년 겨울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섰다(仮称 萩之茶屋まちづくり 拡大会議, 2010). 오사카시가 노점 철거 방침을 제시하자,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인접 자치회와 함께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겨울, 마침내 노점이 철거되고 노점이 있던 자리에는 인도가 설치됐다. 또한,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2010년 8월부

터 10월 사이에 폐쇄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공원을 재생하는 활동을 실시했다.⁹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아이들도 참여하는 ‘이상적인 공원 워크숍’과 ‘제초워크숍’을 열어, 하기노차야북측공원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아이들 스포츠 광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하기노차야 확대회의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을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하기노차야북측공원 이외에 다른 공원도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단, 하나조노공원과 하기노차야중앙공원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과 2월에 이들 공원에 거주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하기노차야 확대회의의 이런 활동 때문에, 2010년 1월, 아사히신문에 「오사카시가 공원 텐트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확대회의는 해산될 위기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가 나가자 가마가사키의 여러 지원 단체들이 반발해, ‘가마가사키의 공원을 지키는 모임’(釜ヶ崎の公園を守る会)을 결성했다.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운동단체들로부터 확대회의가 문제의 “발화점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았다.¹⁰

지역공동체의 여러 주체들 간에 겨우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는 순간에 터진 이 위기가 하기노차야 확대회의의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재생포럼의 역할이 컸다. 재생포럼은 즉각 광장을 열어,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출석한 니시구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마을 만들기에

9. 가마가사키에 있는 일부 공원들은 1970년대 이후 30여 년간 폐쇄된 채 방치되었다(原口剛, 2011b: 253-254). 일용직 노동자가 일거리가 없는 연말연시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월동투쟁실행위원회가 1976년~1977년 제7회 월동투쟁을 실시하기 직전인 1976년 11월 15일, 오사카시는 하나조노공원에서 식사 무료제공(炊き出し) 시설을 강제철거하고 공원을 3미터 높이의 펜스로 폐쇄해버렸다. 따라서 이 해에는 월동투쟁을 하기노차야 북측공원으로 옮겨서 실시했다. 하지만 오사카시는 1977년 4월 6일 하기노차야 북측공원의 식사무료제공시설도 강제철거하고 이곳에도 펜스를 설치했다. 월동투쟁실행위원회는 1977-1978년 제8회 월동투쟁을 하기노차야 중앙공원에서 열려고 사용허가신청을 했으나, 오사카시는 불허가 회답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이 곳마저 펜스로 에워싸 버렸다. 하지만 나중에 열쇠가 풀린 틈을 타 다시 식사무료제공 활동을 하기노차야 중앙공원에서 시작했다.

10. http://hatarakibito.at.webry.info/201003/article_10.html(검색일: 2014. 5. 1).

노력하고 있는 자신들이 오사카시에 이용당했다고 개탄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아리무라의 말에 따르면, “아이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만약 생긴다면, 그것만 있다면 이런 작은 문제든가 공원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공통인식이 생겼다(西成区役所, 2012: 21). 그 결과, ‘마을 만들기 비전’과 ‘과제집적지역에서의 포기하지 않는 공상공몽형(共床共夢型)의 마을 만들기’와 같은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仮称 萩之茶屋まちづくり 拡大会議, 2010).

이처럼, 재생포럼과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분열되어 있던 지역사회에서 마을 만들기에 공감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까지 가마가사키에서 이루어진 운동은 노동자와 홈리스가 중심이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주축이었고, 또 노동운동 내에서도 조직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비해, 마을 만들기 추진 세력은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재생포럼과 조직 단위로 구성되는 하기노차야 확대회의가 상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의 효과를 배증할 수 있었다. 광장은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능한 반면, 하기노차야 확대회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공동으로 실현 가능한 일을 실천해 나가는 네트워크로서 작동했다. 말하자면 가마가사키의 마을 만들기는 개인 참여의 운동과 조직 단위의 운동을 연계시키는 이중구조를 갖춤으로써,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든 셈이다.

IV.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의 전환: 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2012년 1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니시나리특구구상(西成特区構想)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는 행정기관과 전면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을 맞이한다. 니시나리특구구상은 2013년부터 5년간, 니시나리구가 안고 있는 각종 과제 — 높은 생활보호를, 자녀양육세대의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 를 특구 지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えこひいきする西成特区構想・市税減免などで優遇, 産経新聞[大阪], 2012/01/18). 구체적으로, 오사카시는 자녀양육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니시나리구로 전입하는 인구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치안에 만전을 기하며, 니시나리구에 거주하며 사립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니시나리특구구상을 내놓은 것은 그의 또 다른 행정개편 계획인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과 관련되어 있다(아리무라 센과의 인터뷰, 2013/02/12). 이것은 오사카부, 오사카시, 사카이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하시모토 시장은 오사카시 24개 행정구를 5개 혹은 7개의 단위로 통합할 것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가마가사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오사카시의 어느 지역도 가마가사키가 자기 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하시모토 시장은 니시나리구구상을 통해 가마가사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즉, 니시나리특구구상은 사실상 가마가사키를 대상으로 한 도시 거버넌스 정책인 셈이다.

니시나리특구구상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가마가사키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하향식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오사카시의 특별 고문으로 니시나리특구구상을 담당하고 있는 스즈키 와타루(鈴木亘, 2013) 교수에 따르면, 니시나리특구구상은 현재 “지역의 목소리

와 희망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안을 정리해 제시하는 상방형(上方形), 지역 참가형의 특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열린 ‘니시나리특구구상 유식자 좌담회’에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를 실천해온 사람들-가령 재생포럼의 사무국장인 아리무라 센-이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개월간 열 두 차례나 열린 좌담회마다 두세 명의 지역인사가 발표자로 참가해, 이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가마가사키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니시나리특구구상에 반영됐다(地元発西成の街づくり, 読売新聞[大阪], 2012/08/14). 예를 들어, 지역 내 빈 땅을 이용해 손님을 모을 수 있는 노점촌(屋台村)을 설치하고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지역 상점가의 빈 점포나 빈 간이숙박소를 예술 활동의 장소 값싼 주거용 건물로 재정비해서 문화예술 계열의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간이숙박소 밀집지역을 국제 게스트 하우스 지역으로 재편해, 저렴한 숙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수급자나 홈리스를 위한 일거리 만들기, 고령자의 안식처 만들기, 치안환경의 개선 등도 니시나리구상의 실천방안에 포함됐다. 가마가사키 지역구성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니시나리특구구상에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지난 10여 년간 마을 만들기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ありむら潜, 2013).

니시나리특구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첫 해인 2013년에는 오사카시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마가사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해나가는 ‘에리어 매니지먼트 협의회’(エリアマネジメント協議会)가 설치됐다. 이 협의회는 산하에 “개별 테마별로 전문적인 견지에서 의견을 구하는 장”인 4개의 분과회-지역자원활용, 관광진흥, 환경복지, 육아교육-를 두고, “지역멤버(주민, 관계기관, 단체 등)

와 외부 유식자로 구성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西成区役所, 2014). 즉, 에리어 매니지먼트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더불어 마을 만들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인 셈이다.

니시나리특구구상의 또 다른 실천 결과로서, 2013년 7월에는 고령자와 생활보호수급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히토하나센터’(ひと花センター)가 개설됐다(히토하나센터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2014/01/09). ‘NPO가마가사키지원기구와 ‘코코룸’ 등 가마가사키에서 활동하는 여러 NPO가 협력해서 이 센터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예수업 등도 실시하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이 복지수혜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나이가, 2013년 10월에는, 하기노차야 확대회의가 중심이 되어 ‘하기노차야 지역 주변 마치즈쿠리 합동회사’(萩之茶屋地域周辺まちづくり合同会社)라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¹¹ 이 회사는 2014년 4월부터 ‘아이린지역 환경정비사업’(あいりん地域環境整備事業)을 오사카시로부터 위탁 받아, 쓰레기 처리와 텐트, 가건물 대책 담당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를 해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이런 회사를 설립한 것도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더 이상 건설노동을 하기 힘든 고령의 남성들이 생활보호를 받더라도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니시나리특구구상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의 상황은 마을 만들기가 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반드시 행정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마을 만들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동원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는 행정기관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

11. 2014년 5월에 열린 제189회 광장은 ‘하기노차야 지역 주변 마치즈쿠리 합동회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http://www.kamagasaki-forum.com/ja/index.html>(검색일: 2014. 6. 1).

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현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V. 현대 일본사회에서의 마을 만들기: 참여민주적 시민공간의 창출

결론적으로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의 사례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민공간(civic space)을 창출하는 주민운동임을 보여준다. 마이크 더글러스(Mike Douglass)에 따르면, 시민공간이란 “출신이 다른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정부, 상업적 혹은 다른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명시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채, 다시 말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들”을 뜻한다(Sorensen et al., 2008: 33에서 재인용). 여기에는 공원이나 집회소와 같은 건조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합이나 결사체, 그리고 이런 공간을 생산,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포함된다.

가마가사키에서의 마을 만들기 이념과 실천은 시민공간의 이와 같은 정의에 부합된다. 아리무라 센(ありむら 潜, 2013: 122-123)은 니시나리특구구상유식자 좌담회의 성과를 검토하는 글에서, “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활공간을 함께 하는 여러 입장과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의논을 철저하게 하여, 타협하고, 합의를 넓혀가며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그런 민주주의적 프로세스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일본의 시민운동이 그랬던 것처럼(한영혜, 2004),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 운동도 위계적인 조직을 거부하고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면서, 정치적 주체로서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광장이나 하키노차야 확대회의의 운영방식에 이런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하나의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과제를 다루며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소규모 조직들이 행정기관까지 포함해 서로

“중층적 관계”를 맺으며 과제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형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는 “조직이 아닌 운동” 그 자체를 추구해 온 셈이다(韓榮惠, 2014). 따라서 2000년 이후 가마가사키에서 진행되어 온 마을 만들기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근래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장”이 “시민사회의 성장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Sorensen and Funk, 2007: 276).

그러나 가마가사키의 마을 만들기에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키노차야 연구회의 고문으로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에 관여해온 테라카와 세이지 교수는 “지역의 주체 전부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여전히 주체 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의 차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연대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려는 의식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라고 말했다(西成区役所, 2012: 4).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가마가사키의 노동운동조직이 여전히 마을 만들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회와 노동자·홈리스 지원운동단체 간의 관계도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홈리스의 의견이 마을 만들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고령의 생활보호수급자가 단지 복지 서비스를 받는 객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여전히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마을 만들기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일, 구체적으로는 노동운동가로부터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생활보호 수급자까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현재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에 요구되는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영주·박남희.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4호. pp. 133-146.
- 김중섭. 2013. “일본 ‘인권마을만들기’의 기원과 성과.” 『현상과인식』 제37권 4호. pp. 39-62.
- 김진범. 2008. “일본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 전개과정과 교훈.” 『국토』 통권 317호(3월호). pp. 82-92.
-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학보』 13권 1호. pp. 95-115.
- 나가사와 세이지 엮음(김창남 역). 2009.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마을 만들기』. 서울: 제이앤씨.
- 니시무라 이치로(연리지 옮김). 2013.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서울: 알마.
- 도시연대 마을만들기센터 엮음. 2000. 『마을만들기 2000』. 도시연대.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권 1호, pp. 5-43.
- 박지환. 2013. “운동에서 복지로?: 오사카시 가마가사키 노숙인 지원운동의 전개와 변형.”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3호, pp. 73-11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편).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전홍규. 2004. “일본의 홈리스 거주지원과 민간의 역할.” 『도시와 빈곤』 66호. pp. 47-79.
- 코다마 토오루(김선미·전홍규 옮김). 2004. “일본의 홈리스 문제와 거주지원 3.” 『도시와 빈곤』 66호. pp. 125-142.
- 한영혜. 2004.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ありむら潜. 2000. “エッ、ほんまかいな、寄せ場でまちづくり!?: 釜ヶ崎・地域再生の胎動.” 『Shelter-less』 5. pp. 89-94.
- ありむら潜. 2011. “地域活動及び地域産業の推移.” 大阪市立大学都市研究プラザ(編). 『あいりん地域の現状と今後: あいりん施策のあり方検討報告書』. pp. 104-112.
- ありむら潜. 2013. “まちづくり運動の歴史から.” 鈴木亘(編). 『脱・貧困のまちづくり‘西成特区構想’の挑戦』. 東京: 明石書店. pp. 117-123.
- 生田武志. 2007. 『ルポ最底辺: 不安定就労と野宿』. 東京: 筑摩書房.
- 小椋旭·ありむら潜·西口宗広·加美嘉史. 2008. “座談会 つながりで地域と人間の再生を: 釜ヶ崎のまちづくりの実践に学ぶ.” 『福祉のひろば』 101号(8月号). pp. 30-39.
- 大倉祐二. 2011. “生活手段の変容: 労働市場から福祉へ.” 釜ヶ崎支援機構(編). 『回報

- NPO釜ヶ崎第45号: 『新しい社会保障をめざして』. pp. 9-17.
- 大阪市. 2012. “あいりん地域の現状について.” 第1回西成特区構想プロジェクトチーム会議資料. <http://www.city.osaka.lg.jp/nishinari/cmsfiles/contents/0000157/157419/siryou4.pdf>(검색일: 2013. 10. 2).
- 大阪市立大学・都市生活環境問題研究会. 1998. 『大阪市における野宿者概数・況調査』. <http://www.npokama.org/kamamat/3web/siryou/988nojyuku/988suu1.htm>(검색일: 2014. 6. 1).
- 仮称萩の茶屋まちづくり拡大会議. 2010. “課題山積地域におけるあきらめない共床共夢型まちづくり連携事業.” 住まい・まちづくり担い手支援機構平成22年度 住まい・まちづくり担い手事業(住まい一般部門)活動報告書. http://www.s-m-ninaite-shien.jp/dantaihokoku/file/2010_1/31.pdf(검색일: 2013. 9. 30).
- 神田誠司. 2012. 『釜ヶ崎有情』, 東京: 講談社.
- 水内俊雄・平川隆啓・富永哲雄. 2011. 『大阪府簡易宿泊所衛生同業組合50年誌』.
- 鈴木亘. 2013. “今年度の西成特区事業の進捗状況と、来年度以降の事業化見通し.” 釜ヶ崎のまち再生フォーラム 第181回 定例 まちづくりひろば資料. www.geocities.jp/kqsmr859/ronbun/2013-9-10.docx(검색일: 2013. 10. 1).
- 寺川政司. 2012. “萩の茶屋地域のまちづくり活動にみる『西成特区構想』に対する提案.” 第2回西成特区構想有識者座談会資料. <http://www.city.osaka.lg.jp/nishinari/cmsfiles/contents/0000174/174799/02-01-2.pdf>(검색일: 2013. 10. 2).
- 中根光敏. 1996. ““第一次暴動”を基軸とした釜ヶ崎をめぐる社会問題の構成: 行政対策を中心として.” 『解放社会学研究』 10号. pp. 163-184.
- 西成区役所. 2012. “第2回西成特区構想有識者座談会議事録.” <http://www.city.osaka.lg.jp/nishinari/cmsfiles/contents/0000174/174799/gijiroku.pdf>(검색일 2013.9.25).
- _____. 2014. “概要版 平成25年度西成特区構想調査およびエリアマネジメント協議会運営事業報告書.” <http://www.city.osaka.lg.jp/nishinari/cmsfiles/contents/0000264/264167/gaiyouban.pdf>(검색일 2014. 6. 1).
- 日本建築学会 編. 2004. 『まちづくりの方法』. 丸善.
- 丹羽弘一. 1993. “釜ヶ崎—暴動の景観.” 釜ヶ崎資料センター(編). 『釜ヶ崎歴史と現在』. 東京: 三一書房. pp. 197-227.
- 原口剛. 2011a. “釜ヶ崎という地名.” 原口剛・稲田七海・白波瀬達也・平川隆啓(編). 『釜ヶ崎のススメ』. 京都: 洛北出版. pp. 8-29.
- 原口剛. 2011b. “騒乱のまち, 釜ヶ崎.” 原口剛・稲田七海・白波瀬達也・平川隆啓(編). 『釜ヶ崎のススメ』. 京都: 洛北出版. pp. 235-255.
- 韓榮惠. 2014. “現代日本における公共性の脱構築と再構築: 市民社会の運動性と連帯の観点から.” 서울대 일본연구소·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심포지엄 <한일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자료집.
- 平河隆啓. 2011. “釜ヶ崎の住まい.” 原口剛・稲田七海・白波瀬達也・平川隆啓(編). 『釜ヶ崎のススメ』. 京都: 洛北出版. pp. 113-142.

- 福原宏幸. 2012. “就労・雇用状況の推移.” 大阪市立大学都市研究プラザ(編). 『あいりん地域の現状と今後: あいりん対策のあり方検討報告書』. pp. 78-92.
- 藤田忍. 2004. “市民かまやんの登場: 大阪西成区釜ヶ崎の地域再生まちづくり.” 『まちづくり』 7月号. pp. 102-110.
- 水内俊雄. 2007. “釜ヶ崎1999年転回と多様な市民知の邂逅.” 『日本ボランティア学会 学会誌』 8号. pp. 16-29. URP GCOE Report Series 17.
- Bestor, Theodore C. 1989. *Neighborhood Toky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2003. “The Ethics of the Concern of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 Gill, Tom. 2001. *Men of Uncertainty: The Social Organization of Day Laborers in Contemporary Japa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orensen, Andre. 2007. “Changing governance of shared spaces.” In Andre Sorensen and Carolin Funck (Eds.), *Living C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 Sorensen, Andre and Carolin Funck. 2007. “Conclusions: A Diversity of Machizukuri Processes and Outcomes.” In Andre Sorensen and Carolin Funck (Eds.), *Living C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 Sorensen, Andre, Koizumi Hideki, and Miyamoto Ai. 2008. “Machizukuri, civil society, and community space in Japan.” In Amrita Dniere and Mike Douglass (Eds.), *The Politics of Civic Space in Asia*. London: Routledge.
- Watanabe, Shun-Ichi J. 2007. “Toshi Keikaku vs machizukuri: emerging paradigm of civil society in Japan, 1950-1980.” In Andre Sorensen and Carolin Funk (Eds.), *Living Cities in Japan*. London: Routledge.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Machizukuri in an
Urban Lower-Class District, Japan:
A Formation of Participatory-Democratic Civic Space

Jeehwan Par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machizukuri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by illustrating the development of machizukuri in Kamagasaki, Osaka in the 2000s. Kamagasaki is a district for day-laboring market and an area with cheap single-room-occupancy hotels. Machizukuri in Kamagasaki began to address the increase of the homeless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Kamagasaki machizukuri intended to not only provide the homeless with a temporary housing but also to create a social system in which members of the locality including the homeless can co-mingle without ignoring differences and diversities among them. In so doing, Kamagasaki machizukuri combined a forum for individual participation with a network of groups in the locality, thereby producing a civic space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 possible neoliberal governance of the locality. Therefore, this paper does suggest that machizukuri may contribute to creating a participatory form of democracy in contemporary Japan.

Keywords: Machizukuri, Grassroots Social Movement, Homeless, Civic Space,
Kamagasaki